

엄마 치매 약 챙기다 대박 아이템 개발



마리우 서말희 대표

달력에 복용약 넣는 '약 달력'으로 창업 고비 넘기자 주문 쇄도 인생 황금기 맞아

첫 아이가 분만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장애가 생겨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앞친 데 댈친 격으로 친정엄마에게서는 조기 치매 조짐이 나타나는 등 나쁜 일이 잇따랐다.

서 대표는 "분만사고로 아이의 건강이 좋지 못한 데다 친정엄마까지 치매 증상을 보여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분만 의료사고 소송 비용이나 재활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창업을 떠올리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직장생활만 했던 서 대표는 마땅한 창업아이템이 없었다. 그러던 중 치매로 약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약 달력을 떠올렸다.

서 대표는 "치매는 완치를 기대할 수 없고 진행속도를 늦추는 게 최선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꼬박 꼬박 챙겨 먹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 달력을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가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위해 만든 약 달력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별해 나



눈 주머니에 약을 꽂아 놓으니, 복용 여부를 파악하기 쉬웠다. 엄마의 건강을 기원하며 만든 약 달력의 아이템으로 2009년 서 대표는 창업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 대표는 "실제 엄마가 약 달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의학 업체·기관을 대상으로 약 달력을 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업을 시작했다"면서 "퇴직금을 투자해 약 달력 5,000부를 제작, 보건소 등 기관 등을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 반응을 보였던 곳은 서울 도봉구 보건소였다. 약 달력에 대한 반응은 좋았지만 단가가 높은 탓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약 달력을 홍보하기 위한 영업도 별야야 했지만, 어린이를 키우다 보니 금세 한계를 느끼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생계를 잇기위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창업의 꿈과 희망은 놓지 않았다. 기관을 통한 멘토와 지원 등을 받아 지난 2016년 광주 광산구에 사업체를 등록하고 창업에 재도전했다. 하지만, 장당 4만 원대의 약 달력의 단가를 낮춰 제작할 공장을 찾지

않았다. 도중에 창업 자금도 떨어져 또 한 번의 위기까지 찾아왔다.

서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스토리 펀딩의 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후원자가 모여 원단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고, 저렴한 단가에 약 달력을 제작해주겠다는 공장도 연결되는 등 영겼던 일들이 순식간에 풀렸다. 그 결과 개당 4만 원대였던 약 달력 가격이 2만 원대로 이 낮아지자 자연스레 시장의 문도 열렸다. 올해부터는 경기지역 10개 시 보건소는 물론, 제약업체 등 전국 곳곳에서 주문이 쏟아져 언제든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서 대표는 "가족 그리고 꿈과 열정이 위기의 순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면서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도 한 공간에서 아이를 돌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장애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해 장애인 복지에도 이바지하며 사는 것이 최종 목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동료환자 보복폭행 50대 구속

동료환자를 때리고 경찰 신고에 대한 앙심으로 보복 폭행한 50대 알코올 중독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구모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구씨는 이달 5일 오전 7시께 광주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동료환자 김모씨(51)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4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잡자던 김씨 뺨을 때렸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김종찬 기자

"난 술값 못내"

○...노래방 **도리개** 에서 술값 계산 을 서로 미루다

주먹다짐으로 승부를 낸 20대 2명이 폭행혐의로 나란히 경찰서행.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황모씨(25)와 안모씨(25)는 이날 새벽 3시께 지평동 한 노래방에서 서로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과거 일까지 들먹이며 서로 주먹을 휘두른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친구사이가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젠 친구가 아니라 서로 만나지 않아야 할 관계가 됐다"고 혀를 끝. /김종찬 기자

"대학역량평가 최대 피해자 지방대"

광주·전남교수단체, 역량평가 문제점 지적

광주·전남 교수단체들이 "잘못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피해를 지방 대학이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는 7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8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과 지역 대학육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현주 순천대 교수(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진정한 구조개혁 없이 교육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의 정체성이나 주체적 생존 능력을 말살시켜 가는 모순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평가에서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지방대학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 자율 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1개 일반대학 중 87.8%(36개 대학)가 지방대학이다.

최 교수는 문제점으로 ▲ 대학의 총체적 평가로는 부족한 지표항목 ▲ 정성지표 비중 증가로 자의적·주관적 평가 결과 도출 ▲ 평가 이전 평가지표 제시로 정상적인 대학발전 기회 박탈 등

을 지적했다.

이어 "평가 주관기관인 교육부의 권력 편향성이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2단계 평가에서 비리 대학을 감점대상으로 삼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정한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대, 공영형 사립대의 제도화, 교육부의 합의를 기구 변경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방교조전대 교수(민교협 조선대분회)는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에서 소외된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지 교수는 ▲ 평가목적과 괴리된 평가 ▲ 대학 서열화를 조정하는 평가 ▲ 타당성 없는 평가 ▲ 수도권 편향적인 평가 ▲ 지방대학의 역할을 무시한 평가 ▲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은 평가 등을 들어 대학역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인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은 기업이 아니며 마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듯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매우 위험하다"며 "무리하고 획일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태극기 받아가세요"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두동 주공아파트에서 열린 '태극기 사랑운동'에서 북구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김태규 기자

시험지 유출관련 수험생 무등록 학원 다녀

유출된 시험지로 기말고사 등을 치른 고 3 수험생이 다녔던 학원이 2년 이상 무등록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18)이 다녔던 학원이 등록 취소된 뒤에도 운영된 점을 파악하고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학원이 지난 2016년 6월께 학원 등록이 취소된 점을 파악했다.

이 학원은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된 점이 교육청 조사 등으로 적발돼 별점에도 운영된 점을 파악하고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

경찰은 교실에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 3~4개가 놓여있고 칠판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학원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학원의 운영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학원 측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찬 기자

상가원룸매매 {신축전문}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1층 ★ 상가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4층 (주택) ★ 공원앞 전망 최고 ★

보 9천 / 월 600만(용3억)

▶ 매가 9억3천만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② 월곡동 (1층 상가1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합16개) 월세 590만 ▶ 매가 8억 7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3천만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안집1개)7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6천 300만

-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23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5백만
-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1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승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가 9억
-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승탄역권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상가1개) ▶ 매가가 3억5천만

010-7384-7800